

# 국어 (7급)

(과목코드 : 014)

2025년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번호 :

성명 :

1. <공공언어 바로 쓰기 원칙>에 따라 <보기>의 ㉠ ~ ㉣을 수정한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공공언어 바로 쓰기 원칙> —

- 어문규범을 지킬 것
- 문장을 문법에 맞게 쓸 것
- 중복적인 표현은 간결하게 고칠 것
- 조사나 어미를 지나치게 생략하지 않을 것

— <보기> —

안녕하십니까?  
통계청과 법무부에서 ㉠공통 실시하는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 조사’를 위한 안내입니다.  
만일 조사 협조문을 ㉡받지 못하셨다면 이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부는 여러분의 외국인 등록, 귀화 신청 등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으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통계청은 국가의 주요 통계를 작성하는 중앙 정부기관입니다.

법무부와 통계청에서 진행하는 ㉣조사 내용은 모든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공통 조사 항목과 체류 자격에 따라 추가로 조사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 ① ㉠: 공동으로 실시하는
- ② ㉡: 받지 못 하셨다면
- ③ ㉢: 법무부는 여러분의 외국인 등록, 귀화 신청 등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입니다.
- ④ ㉣: 조사 내용은 공통 조사 항목과 체류 자격에 따른 조사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밑줄 친 부분의 표기가 옳은 것은?

- ① 오늘은 나 먼저 갈께.
- ② 어른 앞에서는 행동을 삼가야 한다.
- ③ 우리의 간절한 바램은 그가 무사히 돌아오는 것이다.
- ④ 이 노래는 사랑에 빠진 순간의 설레임을 동화적으로 풀어낸 가사가 특징적이다.

3.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의 표기가 잘못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미루고 미루다 보니 결국 사단이 났다.  
ㄴ. 그는 관심이 땡기는지 다음 말을 재촉했다.  
ㄷ. 책을 읽으면서 몰랐던 사실을 스스로 깨우쳤다.

- ① ㄱ
- ② ㄱ, ㄴ
- ③ ㄴ, ㄷ
- ④ ㄱ, ㄴ, ㄷ

4.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른바 말투라는 것이 있다. 인간은 상대방의 말투로 상대방을 평가하기도 한다.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말하느냐도 중요하다. 제목은 한마디로 기억되는 것이니까 한마디로 그 발화자를 평가하는 것이기도 하다. 말에 재미를 붙여넣으려다 저속하고 가벼운 인간이 되는 경우도 있다. 또 호들갑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적 깊이가 없어 보일 수도 있다. 때로는 밋밋해 보이는 제목에 신뢰감이 담길 수도 있다. 짧고 소박한 제목이 과묵하고 정직해 보일 수도 있다. 그렇게 인간성이 흘러나오는 제목이 독자를 붙잡을 때가 많다.

- ① 쉬운 제목이 반드시 잘 팔리는 것은 아니다.
- ② 제목은 유혹하는 행위이다. 살짝만 보여줘라.
- ③ 제목은 내용이 잘 정리돼 있음을 암시해야 한다.
- ④ 제목은 의미 외에 태도와 인간 품격까지 보여준다.

5.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 ① 나는 세 번만에 그 시험에 합격했다.
- ② 듣고 보니 좋아할만은 한 이야기이다.
- ③ 친구가 도착한 지 두 시간만에 떠났다.
- ④ 열 장의 복권 중에서 하나만 당첨되어도 바랄 것이 없다.

6. 다음 설명을 바탕으로 할 때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영어에서는 동사의 유형을 바꿈으로써 능동문과 피동문이 자유롭게 구사되고, 무생물을 주어로 쓰는 데 익숙해 있다. 그러나 우리말에서는 피동형을 쓰면 문장이 어색해질 뿐 아니라 행위의 주체가 잘 드러나지 않아 뜻이 모호해지고 전체적으로 글의 힘이 떨어진다. 불가피하거나 완곡하게 표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능동형을 쓰는 것이 좋다.

- ① 시장 상황에 따라 제품 수급이 적절하게 조절되어야 한다.
- ② 이제 본격적으로 정보사회에 대비한 체계적인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 ③ 인간이 초래한 생태계의 인위적 변화로 자연계에 돌연변이가 일어나고 있다.
- ④ 미개척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현지 진출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7. (가)와 (나)를 전제로 결론을 이끌어 낼 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고속버스로 갈 수 있는 도시는 모두 승용차로 갈 수 있다.  
 (나) 고속버스로 갈 수 있는 도시 가운데는 KTX로 갈 수 없는 도시도 있다.  
 따라서

- ① 승용차로 갈 수 있는 도시 가운데는 KTX로 갈 수 없는 도시도 있다.
- ② 승용차로 갈 수 있는 도시는 모두 고속버스로 갈 수 있다.
- ③ 승용차로 갈 수 있는 모든 도시는 KTX로 갈 수 있다.
- ④ 고속버스로 갈 수 있는 어떤 도시는 승용차로 갈 수 없다.

8. 제시된 문장의 표기가 모두 옳은 것은? (단, √은 띄어쓴다는 표기임)

- ① 밤새√지근거리던√머리가√이튿날이√되자√멀쩡해졌다.
- ② 그√건물은√기둥이√지붕을√떠바치고√있는√모양새였다.
- ③ 언√땅을√잘못√딘다가√발목을√접질렸다.
- ④ 그는√빈털털이√신세였지만√희망을√잃지√않았다.

9. 다음 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설명한 것 중 가장 적절한 것은?

하나의 단어는 형태, 즉 음성기호와 의미로 구성된다. 그런데 형태와 의미는 일대일의 대응 관계는 아니다. 하나의 형태에 여러 개의 의미가 대응되기도 한다. 이때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니는 별개의 단어이지만 형태가 같은 경우도 있고 반대로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개의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 전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단어를 동음어라 하고 후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단어는 다의어라 한다. 다음 문장에는 모두 ‘쓰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형태는 같지만 의미 관계는 다양하다.

— <보 기> —

ㄱ. 그는 요즘 신문에 연재소설을 쓰고 있다.  
 ㄴ. 그는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  
 ㄷ. 그는 아무에게나 반말을 쓴다.  
 ㄹ. 감기를 앓았더니 입맛이 쓰다.  
 ㅁ. 이 일에는 경험이 많은 사람을 쓰기로 했다.

- ① ㄱ, ㄴ, ㄷ의 ‘쓰다’는 동음어라고 할 수 있다.
- ② ㄱ, ㄴ, ㅁ의 ‘쓰다’는 다의어라고 할 수 있다.
- ③ ㄱ, ㄷ, ㅁ의 ‘쓰다’는 동음어라고 할 수 있다.
- ④ ㄴ, ㄷ, ㄹ의 ‘쓰다’는 다의어라고 할 수 있다.

10. 밑줄 친 관용구의 쓰임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그 사람은 그쪽 방향으로 발이 넓어 네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다.
- ② 저렇게 눈이 높은 아가씨에게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청년이 눈에 날 리가 없다.
- ③ 이게 무슨 망발이란 말이요. 다 된 일에 코 빠뜨리자는 속셈이 아니라면 대관절 이럴 수가 있는 거요.
- ④ 동네 사람들에게 친절한 사람으로 비쳤던 김 씨가 사실 엄청난 사기꾼이었다는 말을 듣고 모두들 입이 썩다.

11. 중복 표현이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지난 과거는 다 잊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자.
- ② 패스트푸드가 아니라 슬로푸드를 먹어야 한다.
- ③ 게시판에 자주 묻는 질문을 한번 정리해 봤어요.
- ④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반수를 넘는 사람이 찬성했다.

12. 다음 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푸른 하늘에 닿을 듯이  
세월에 불타고 우뚝 남아 서서  
차라리 봄도 꽃피진 말아라.

낮은 거미집 휘두르고  
끝없는 꿈길에 혼자 설레이는  
마음은 아예 뉘우침 아니리

검은 그림자 쓸쓸하면  
마침내 호수 속 깊이 거꾸러져  
차마 ㉡바람도 흔들진 못해라.

- 이육사, 「교목」 -

- ① ㉠은 시적 자아가 지향하는 이상 세계를 상징한다.
- ② ㉡은 시적 자아의 의지를 꺾으려 하는 외부적 힘을 상징한다.
- ③ 흑독한 현실에 굴복하지 않는 강인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④ 부정적 명령형 어미의 시어를 사용하여 부당한 세력에 비판을 가하고 있다.

13. 밑줄 친 사자성어의 쓰임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오래 길들인 생활의 터전을 내준 걸 후회했다. 후회해 봤자 晩時之歎이었다.
- ② 눈보라가 몰아쳐 산을 오르기가 어려웠는데 雪上加霜으로 주위마저 어두워지기 시작하였다.
- ③ 외촌동은 하루아침에 미군이 철수해 버린 기지촌처럼 썰렁해졌고, 여태까지 遲遲不進으로 뛰어오르던 땅값은 폭락하여 버렸다.
- ④ 달주는 편지를 읽고 나서도 한참 멍청한 기분이었다. 換骨奪胎라고 하지만 사람이 달라져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인지 놀라울 뿐이었다.

14. 밑줄 친 한자어의 풀이가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회담이 교착(膠着) 상태에 빠졌다. → 사물들이 서로 깊은 관계를 가지고 결합하여 있음.
- ② 회담이 타결점에 육박(肉薄)했다. → 바싹 가까이 다가붙음.
- ③ 이 조약의 공포는 두 나라의 영토 분쟁을 종식(終熄)하는 의미를 지닌다. → 한때 매우 성하던 현상이나 일이 끝나거나 없어짐.
- ④ 장군은 일본 수군의 준동(蠢動)이 반드시 또 한 번 크게 있을 것을... → 벌레 따위가 꿈적거린다는 뜻으로, 불순한 세력이나 보잘 것없는 무리가 법석을 부림을 이르는 말.

15.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갈통(J. Galtung)은 폭력을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모독하는 모든 것으로 정의하면서 물리적, 직접적 폭력 외에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이 존재함을 지적하고, 평화를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로 구분한다.

소극적 평화란 전쟁, 테러, 범죄와 같은 물리적 폭력이 없는 상태이다. 이는 직접적으로 폭력을 제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빈곤이나 인권 침해 같은 다양한 차원의 폭력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갈통은 물리적 폭력 뿐만 아니라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까지 사라진 상태인 적극적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 이는 가난, 차별, 억압, 환경 파괴 등이 제거되어 사람들 간의 협력과 조화, 그리고 정의가 실현된 상태를 의미한다.

- ① 폭력은 구조적, 문화적 폭력 등의 소극적 폭력과 물리적, 직접적 폭력과 같은 적극적 폭력으로 구분된다.
- ② 소극적 평화의 단점은 빈곤이나 인권 침해 같은 다양한 차원의 폭력을 고려하지 않는 점이다.
- ③ 적극적 평화란 가난, 차별, 억압, 환경 파괴 등이 제거되어 정의가 실현된 상태를 말한다.
- ④ 폭력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모독하는 모든 것이다.

16. 전제를 바탕으로 결론을 논증하고 다시 결론을 바탕으로 전제를 논증하는 오류의 예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12는 5와 7로 나뉜다. 그러므로 5와 7도 짝수다.
- ② 이 옷은 값이 싸다. 값이 싼 것은 쉽게 떨어진다. 그러므로 이 옷은 쉽게 떨어진다.
- ③ 김 선생의 의견도 틀렸다. 민 선생의 의견도 틀렸다. 그러므로 선생들의 의견은 틀렸다.
- ④ 그는 덕망이 높다. 그는 인격자이니까. 그러므로 그가 인격자인 것은 덕망이 높기 때문이다.

17. 다음은 우리말의 어순(배열 순서)에 관한 설명이다. 밑줄 친 부분의 어순이 ㉠~㉤에 들어갈 예시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시간 관련어의 어순(배열 순서)은 기본적으로 생각의 순서를 반영한다. 문법적으로 대등한 자격을 가진 요소들이 나란히 배열될 때는 일정한 원칙이 있다.

- (1) 기준(발화시)이 없을 때는 자연 시간의 순서에 따른다. .... ( ㉠ )
- (2) 기준(발화시)이 있을 때는 가까운 것이 앞서고 멀어질수록 뒤로 간다. .... ( ㉡ )
- (3) 이동이나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는 시간적으로 먼저 일어날 것이 앞선다. .... ( ㉢ )
- (4) 특별히 강조하거나 초점이 놓이면 시간적 순서가 반대가 된다. .... ( ㉣ )

- ① ㉠: 우리나라에는 봄-여름-가을-겨울의 네 계절이 있다.
- ② ㉡: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활을 걸었다.
- ③ ㉢: 날씨가 좋아 강변에는 나들이 온 사람들로 붐볐다.
- ④ ㉣: 잡음이 많아 무슨 소린지 알아들을 수가 없구나.

18. 중의성이 나타나지 않은 문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영희와 철수는 결혼하였다.
- ② 준호는 민수와 철수를 만났다.
- ③ 그는 철수를 자기 친구라고 생각했다.
- ④ 어머니는 웃으면서 노래하는 아이를 바라보았다.

19. (가)~(다)의 전개 순서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공유 경제’는 사람들을 소유욕에서 자유롭게 하고, 공유할수록 더 다양한 것을 풍족하게 누리게 한다는 점에서 분명 매력적이다.

(가) 하지만 이런 주장은 반만 맞는 이야기다. 벌어지는 현상 이면으로 조금만 시선을 돌리면 미래를 공유의 시대로 선포하는 데 신중해질 것이다. 지금 세상에서는 데이터 소유 전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엄청난 영상들을 공짜로 공유하게 됐지만 영상을 보는 대가로 우리는 자신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플랫폼 제공자에게 전송하고 있다. 지난 주말에 찾았던 명소와 맛집에 대한 후기를 공유하며 보람과 즐거움, 존재감을 만끽하는 동안 우리 자신에 대한 수많은 데이터 또한 플랫폼 제공자에게 전송되고 있다.

(나) 나의 경험이 사진과 영상, 문자로 공유되고 지구 반대편 네티즌들에게 부가가치를 제공한다면 이는 공유 경제가 맞다. 하지만 그 와중에 나에 대한 더 많은 데이터가 매력적인 공유의 장을 마련한 그 누군가에게 집중적으로 제공된다. 이렇게 공유된 데이터를 소유한 소수 집단이나 개인은 데이터 제공자에 대해 막대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 드러난 모습으로는 공유 경제지만 안으로는 업그레이드된 소유 경제다. 새로운 소유 경제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공유 경제가 미래 비즈니스를 이끌 것이라고 예상한다. 더 이상 공유 경제는 일부 스타트업, 경제 전문가들만 이해하면 되는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다. 미래 비즈니스 정글에서 생존하기 위해 고민하는 사람들은 물론, 자유를 누리면서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고 싶어 하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전 세계적 파도라는 것이다.

- ① (가) - (나) - (다)
- ② (나) - (다) - (가)
- ③ (다) - (가) - (나)
- ④ (가) - (다) - (나)



24.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한글 전용이나 한자 병용이나 하는 논쟁은 한글 전용 쪽으로 승부가 난 듯하다. 이러한 결과는 지극히 실용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다. 타자를 통해 한자를 입력하는 것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어려운 한자를 굳이 쓰지 않아도 쓰기, 읽기 모두 큰 문제가 없으니 자연스럽게 한글 전용을 택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한자의 불편함’ 때문이 아니라 ‘한글의 충분함’ 때문이다. 한글의 충분함은 한글 ‘한 글자’가 담고 있는 정보가 꽤 많다는 것으로 뒷받침된다. 우리나라를 ‘韓國’으로 쓰든 ‘한국’으로 쓰든 모두 두 글자다. 한자는 더 나눌 수 없지만 ‘한국’은 ‘ㅎㅏㄴ ㄱㅜ ㄱㅛ’으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글자 수로는 여섯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 여섯 개의 글자를 ‘한국’과 같이 다시 두 글자로 모아쓰니 ‘한 글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꽤 많은 것이다. 로마자로 ‘KOREA’라고 쓰면 다섯 글자인데 이는 더 나눌 수도 없고 모아쓸 수도 없다.

한글의 이러한 특성을 활용하여 요즘 젊은 세대들은 한자가 아닌 한글만으로 단어를 만든다. ‘집에서 먹는 밥’이란 뜻의 단어를 젊은 사람들은 ‘집밥’으로 줄여 쓰고 있다. 한자에 익숙한 사람들은 ‘家食(가식)’이나 ‘家飯(가반)’ 정도로 만들었을 것이다. ‘혼자서 먹는 밥’이나 ‘혼자서 가는 여행’도 ‘혼밥, 혼행’으로 쓴다. 굳이 한자를 쓰지 않아도 한글 두 글자에 충분한 정보를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 ① 한글 전용이 이긴 것은 젊은 세대들의 한글 사랑에 의한 것이다.
- ② 한글 한 글자에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는 것은 모아쓰기 방식 덕분이다.
- ③ 컴퓨터의 발달로 인한 한자 입력의 불편함이 한글 전용이 이기게 된 주된 요인이다.
- ④ 젊은 세대들이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방식은 한자에 대한 지식의 유무와 관련이 깊다.

25.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공정한 기회균등 원칙에 입각한 교육이 불평등을 조장한다는 주장은 공정한 기회균등 원칙을 보상 제도로 오해하는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공정한 기회균등 원칙은 재능 있고 우연성이 좋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경쟁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전자의 교육을 제한하려는 원칙으로 오해한 듯하다.

존 롤즈(John Rawls)가 말하는 공정한 기회균등 원칙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자신의 재능을 실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교육과 관련해서 롤즈가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부정의(不正義)인 불공정함은 자신의 능력을 사회적인 여건으로 인해 계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연적 우연성에서 유리한 사람 즉 천부적 능력과 재능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에게 더 많은 재화를 투여하는 것은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는다. 이러한 공적 재화 투여가 자연적 우연성에 토대를 둔 교육 혜택에서 더 많은 격차를 나타낼 수 있겠지만, 롤즈는 이러한 격차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격차가 교육에 머물지 않고 사회적·경제적 특권으로 전이되어 불평등을 야기한다면 부정의하다는 것이 롤즈의 입장이다. 예를 들어 교육을 통해 더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 그러한 많은 교육이 필요한 직업을 갖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그러한 직업을 통해 지나치게 큰 경제적 혜택을 독점하고 사회적 권력을 갖는 것은 부정의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롤즈의 민주주의적 평등은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의 이러한 부수 효과를 차등 원칙을 통해 교정하고자 한다.

- ① 사회적인 여건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계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은 불공정하다.
- ② 천부적인 능력과 재능이 부족한 사람의 교육에 더 많은 재화를 투여해야 한다.
- ③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 그 결과로 경제적·사회적 특권을 갖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 ④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 잘 지켜진다면 교육은 불평등을 초래하지 않는다.